



# 타이거즈 'V11 밀그림' 그렸다

지난달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던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 선수단이 29일 귀국했다. 캠프지인 킨 구장에서 외야수들이 수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선수단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 마치고 귀국

기술·체력 업그레이드...자율 훈련에 경기장 복적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는 플레이 루키 발걸 성과도

‘호랑이 군단’의 2017시즌 밀그림 그리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날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던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선수단이 29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기태 감독은 “성실하게 캠프를 완수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게 고맙다”면서 “젊은 선수들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팀이 강해졌음을 느꼈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발굴한 것이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감독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선수 개인의 기술 향상에 대해 많은 주의를 했고,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업그레이드됐

다”며 “1군 무대에서 뛰기 시작한 선수들도 성숙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이 높은 마무리 훈련 캠프였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예전보다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캠프였고, 선수들이 잘 따라왔다”고 언급할 정도로 체력적인 부분이 우선 과제로 주어졌다. 이를 위해 KIA는 배양한 트레이너 코치를 새로 영입해 이번 캠프를 진행했다. 강도 높게 진행된 체력 훈련에 선수들은

“기술 훈련 외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반응이다. 타격 지도를 위해 합류한 소다 코치도 선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전력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선수들의 훈련 의지도 높았다. 정규 훈련이 끝난 뒤 선수들은 ‘자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율 훈련이 나섰다. 입단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인’부터 캠프 최고참 김주형까지 자발적으로 추가 훈련을 치렀다. 오후 7시가 되면 숙소 축구장 조명이 환하게 밝혀졌다. 야

간 훈련을 하는 선수들로 축구장은 늘 북적거렸다. 세 차례 진행된 연습경기의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롯데에 이어 두 차례 삼성을 상대한 KIA는 2승1패의 전적을 남겼다. 결과보다 더 의미 있던 것은 선수들이 만들어낸 경기 내용이었다. 특히 2016·2017 루키들이 프로 선배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2017시즌의 밀그림이 그려지는 동안 한국에서는 전력 보강이 이뤄졌다. KIA는 FA를 선언한 나지완을 잔류시켰고, ‘대어’ 최형우와 FA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업그레이드된 타선을 완성했다. 한편 오키나와 킨구장과 합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나눠 훈련을 진행해왔던 KIA 선수들은 오는 3일 ‘차영하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김광현



양현종

## 김광현 SK와 4년 85억 계약...양현종은?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 김광현을 4년 더 예이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는 29일 김광현과 4년간 계약금 32억원, 연봉 53억원 등 총 8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KBO리그 최정상급 좌완 투수인 김광현은 계약 전까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 고민했으나 결국 친정 잔류를 택했다. SK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않으면 SK에 남길 권유하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김광현은 2007년 1차 지명으로 SK에 입단, 10년간 통산 242경기 출장에 평균자책점 3.41, 108승 63패 2홀드, 1146탈삼진을 기록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그는 2008년 최우수선수(MVP) 및 투수 골든글러브·다승왕·탈삼진왕, 2009년에는 최우수 평균 자책점 및 승률왕, 2010년

다승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에 기여했다. 당초 김광현이 국내 잔류를 선택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SK 고위 관계자는 최근 “(김광현과 계약할 경우) 보상 금액보다는 옵션을 맞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계약을 마친 김광현은 “비교 불가능한 소속감과 안정감이 SK와 계약하게 된 주요인”이라며 “오프시즌 동안 성실히 개인 준비를 마치고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광현은 다음 달 5일 일본의 한 병원에서 올 시즌 중 부상으로 불편함을 느낀 팔꿈치 상태를 정밀 검진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 KIA 내달 4일 ‘사랑의 쌀’ 배달 행사

KIA 타이거즈가 ‘사랑의 쌀’ 전달로 지역 사랑을 실천한다. KIA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들은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광주 북구 임동 기초 수급 가정에 사랑의 쌀 4200kg을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펼친다.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은 이날 임동 내 소외계층 200가정(기초수급 146, 차상위 34, 한 부모 20)과 지역아동센터 2곳을 직접 방문해 20kg 들이 쌀 1포대와 방한용품(난방텐트, 방한 양말)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랑의 쌀’은 KIA 구단과 구장 입점 업체인 미니스톱이 십시일반 해 마련했다. 구단은 올 시즌 운영한 물품보관함 수익금에 자체 예산을 추가했고, 미니스톱은 입점 당시 구단과 맺은 사회공헌 협약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를 보냈다. 구단 공식 상품업체인 ‘비전코리아(대표 김선호)’도

점퍼 등 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이웃들에게 전달될 쌀은 KIA의 퓨처스 구장 ‘챌린저스 필드’의 소재지인 함평지역의 특산물인 함평나비쌀로,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함평이 할인 제공했다. 선수단 상조회장 이병호는 “선수단 전원이 참가해 한 시즌 동안 받았던 사랑을 지역민들과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는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비록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IA타이거즈 관계자도 “앞으로도 선수단과 함께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日 오타니 MVP 수상

일본프로야구 투수 겸 타자 오타니 쇼헤이(22·닛폰햄 파이터스)가 데뷔 4년 만에 MVP까지 품었다. 오타니는 28일 열린 ‘일본프로야구 어워드 2016’에서 1위 표 253장으로 총점 1268점을 획득, 팀 동료 브랜던 레어드(298점)를 따돌리고 퍼시픽리그 MVP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투수와 타자 모두 골목할 만한 기량을 보여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오타니는 유효표 254장 가운데 253장을 얻어 만장일치에 1표가 모자랐다. 이번 시즌 오타니는 타자로 10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2(323타수 104안타) 홈런 22개 67타점 65득점을 올렸으며, 투수로는 21경기에서 140이닝을 소화하며 10승 4패 1홀드 평균자책점 1.86을 기록했다.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한 오타니는 올스타전 홈런 터전에서 우승하며 장타력을 뽐냈고, 투수로는 일본프로야구 최고 구속(비공인)인 165km를 찍기도 했다. /연합뉴스

## WBC 내년이 마지막?

수익성 저조·스타선수 이탈...미국내 호응도 없어



내년 3월 열리는 제4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이 마지막 대회라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29일(한국시간) 이번 대회에서마저 수익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2017년 WBC가 마지막이라 수 있다고 WBC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야구 국가대항전인 WBC는 200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09년, 2013년에 이어 내년이 제4회 대회를 맞는다. 제4회 대회는 서울과 도쿄, 마이애미,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조별리그를 거쳐 도쿄와 샌디에이고에서 준결승,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승이 진행된다.

겉으로 봤을 때는 대회가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수익성 저조라는 난관에 직면했다고 ESPN은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WBC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별다른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출신의 메이저리거들이 미국 대표로 WBC에 출전하길 꺼리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은 정작 WBC에서는 2009년 제2회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가를 대표해 WBC에 출전한다는 자부심은 점점 줄어들었고, 스타 선수들의 이탈 속에 WBC 대회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ESPN은 “WBC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보험료를 덜 내려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어 골칫거리”라며 “미국 내 열광한 분위기 역시 큰 우려 사항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한국여골프, 일본전 설욕 나선다

내달 2일부터 4개국 대항전...상금 상위 총출동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를 상대로 설욕전에 나선다. KLPGA 투어 선수 9명은 오는 12월 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나고야의 미요시골프장(파72·6500야드)에서 열리는 4개국 투어 대항전 더커플드 대회에 출전한다. 더커플드는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등 4개국 여자 프로골프투어 팀 대항전이다. 투어 대항전이지만 선수 선발은 국적에 기준이라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하다. 더커플드는 사실상 한국-일본 대항전이다. 한국은 투어 최정상급 선수가 총출동한다. 상금왕 박성현이 빼졌지만 상금랭킹 2위부터 10위까지 출전한다. 일본 역시 JLPGA투어 상위권 선수들이 주력이다. 9명 가운데 8명이 이번 시즌 상금랭킹 20위 이내에 오른 선수들이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 이어 준우승에 그쳤다. 설욕을 다짐한 한국은 일본 무대에서 올해 3승을 끌어담으며 상금랭킹 2위를 차지한 신지애와 K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대상을 거머쥔 고진영을 선봉에 내세웠다. 일본 선수를

날낱이 파악하고 있는 신지애는 주장의 대임을 맡았다. 장수연, 배선우, 이승현, 김민선, 조정민, 김해림, 정희원 등은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포볼, 포스트, 싱글 매치플레이 등 이번 대회와 똑같은 포맷으로 경기를 치른 지 닷새 만에 출격한다. 한국 대표팀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가 주력인 반면 일본은 노련한 고참 선수들이 전력의 핵이라는 점이 다르다. 올해 2승을 따내 상금랭킹 3위를 차지한 류리스크(29)가 일본 대표팀의 리더다. 통산 17승을 올리고 리우 올림픽 일본 대표로 출전했던 노장 오야마 시호(39)를 비롯해 니시야마 유키카(33), 시모가와 메구미(32) 등 베테랑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대회는 첫날 포스트, 둘째날 포볼, 그리고 최종일 1대1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기면 승점 3점, 비기면 1점을 부여해 승점 합계로 팀 순위를 가린다. 총상금 1억원 가운데 우승팀에는 4500만엔이 돌아간다. 선수 1인당 500만엔이다. 준우승 팀은 선수당 300만엔씩 모두 2700만엔을 받는다. /연합뉴스